

공동체 소식



연중 제28주일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10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 **지난주일 ‘야외행사’ 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본당 총구역회**

- 일 시: 오늘 교중미사 후.

■ **10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 시: 10/15(토) 오전11:00

■ **본당 재무위원으로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 내용: 헌금정리 및 본당재무에 관련된 활동에 봉사하시고자 분들의 신청 받습니다. 그 동안 재무위원으로 봉사해오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스톤 채플(Stone Chapel)’ 건물보수기금 모금에 정성껏 협조바랍니다.**

- 기준금액: 300불/1가정 이상.

■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 장 소: 본당 나자렛관.

■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24	217	174	246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최은미 아네스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박정자, 김경돌, 이은미
차주	김시연, 신해경, 김말자

■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2	67명	232불	-
-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0불, 총합계: 4,05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회 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ch01yim@hanmail.net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은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여 치유를 받은 열 사람 가운데 감사를 드리러 돌아오는 외국인인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도 감사하기를 잊은 나병 환자 아홉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화해설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다 (코시모로셀리, 1481-1482년,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소장)
오늘 복음에서 열명의 나병환자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루카 17,17-18) 모든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의 모상이며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반사되어(「생명의 복음」 34항 참조) 빛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의 치유는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5,14-17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2,8-13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19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쉐 마

하느님께 얼마나 충실한가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주제는 “믿음”, 곧 “성실함”입니다. 지난주 복음 생각에서 “믿음”과 “성실함”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두 믿음, 곧 성실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믿음을 지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1독서에서는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던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나아만은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지만, 수행원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자 나병이 낫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큰 선물을 주면서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고 나아만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1독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에 이어 엘리사의 종 게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하지는 나아만이 가지고 돌아가던 선물에 탐을 내고 쫓아가서는 거짓으로 그 선물을 챙겨 돌아옵니다. 게하지가 자신의 말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이 게하지와 그 후손에게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방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충실히 지키는데, 유대인 게하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느님의 계획을 거스르다 나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홉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치유를 얻은 뒤 즉시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하지만 열 가운데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충실한 그를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인 그가 진정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출신성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충실한가, 믿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 믿음을 지닌 사람, 하느님의 은총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는 이런 가르침이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위해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거나,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받으면 상황은 달라 집니다. 많은 이들은 고통, 핍박, 박해 상황이 되면 하느님을 비난하며 떠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닌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는 오늘 2독서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2티모 2,11-12)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함,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충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당신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을 버리는 이들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좌절을 극복한 마르코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인 마르코는 베드로 사도가 아들과 같이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마르코는 열심한 믿음을 지녔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베드로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통역사로 전교의 일선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청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르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관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마르코 복음서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16,20

마르코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배 모임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봉헌할 정도로 신심이 깊었습니다. 마르코의 집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헤로데에 의해 감옥에 붙잡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제일 먼저 찾은 집도 바로 마르코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했으며, 마르코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2,6-19

마르코는 유명한 바르나바 사도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오로는 바르나바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을 찾아가자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르코도 같이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여(사도 13,13) 둘은 크게 싸웁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5,36-41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하러 떠날 때 사도 바오로는 기대가 컸던 마르코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마르코는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페르게에서 시작되는 전도여행 앞에는 흉수 등 자연적인 재해, 유대인의 박해, 풍토병, 강도의 위험 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어린 마르코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지만 얼마 후 마르코는 낙담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 활동했고, 베드로 사도의 통역을 맡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에서 전승을 모아 마르코 복음서를 저술하여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눈물과 감사

잊지 마세요.

눈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감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19)